

터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09. 2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10 |
| IV. 국제신인도 | 14 |
| V. 종합의견 | 16 |

터 키(Republic of Turkey)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780천 km ² | G D P | 7,441억 달러(2008) |
| 인구 | 74.88백만 명(2008) | 1 인 당 GDP | 9,938 달러(2008) |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통화단위 | 신터키리라(YTL) |
| 대외정책 |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 환율(달러당) | 1.30(2008년 연평균) |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약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천4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EU와 터키는 2004년 가입협상을 시작한 후, 터키는 소수민족 인권상황 개선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2006년 12월 EU 가입협상이 부분 중단되기도 하였음. 2007년 7월 조기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정권 재창출로 정국 혼란이 일단 해소되었으나, 2009년 3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 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블루오션의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터키에 대한 시장진출 및 경제협력 증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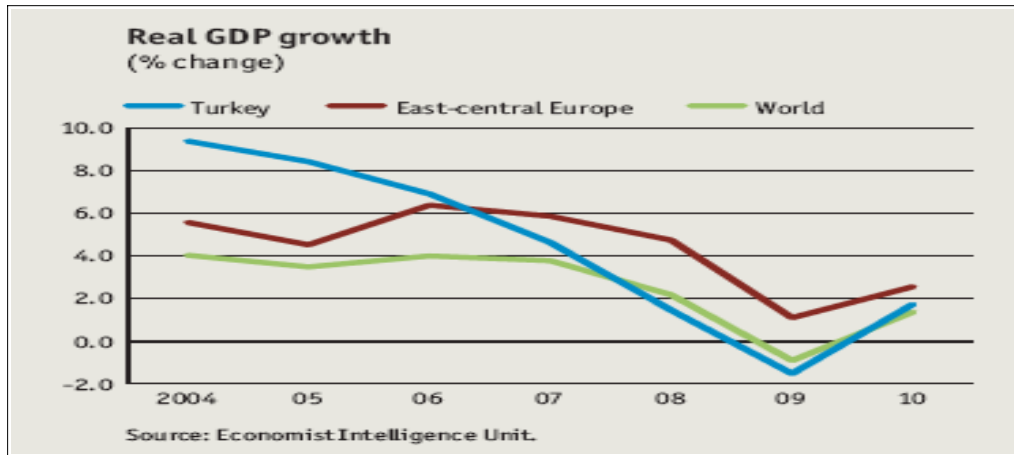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e |
|------------|------|------|------|------|-------------------|
| 경제성장률 | 9.4 | 8.3 | 6.9 | 4.5 | 2.3 |
| 재정수지 / GDP | -5.4 | -1.3 | -0.6 | -1.6 | -1.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0.6 | 10.1 | 10.5 | 8.8 | 11.3 |

자료: IMF 및 EIU.

□ 경제성장 둔화추세 우려

-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2002년 이후 평균 7%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06년 중반 농작물 작황부진, 환율 및 물가 불안, 고금리 및 소비자 신뢰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0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 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함.
- 2007년에는 자동차판매 증가 및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반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인플레이에 따른 소비자 수요 및 고정투자 증가율 상승추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에 그쳤음.
-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성장둔화, 상반기 경기호조와는 반대로 하반기의 민간소비 침체 및 고정투자 위축, 9-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IMF는 터키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터키의 산업생산증가율은 11월에 -13.9%를 기록, 7년 만에 가장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제조업생산증가율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11월에 전년 대비 -15.5%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 둔화 징후가 뚜렷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터키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자료: EIU, Turkey Country Report, Feb. 2008.

□ 높은 외부조달 의존에 따른 경제 취약성

- 터키는 2004년 GDP의 4.6%에 달하던 경상수지 적자가 2007년 5.7%, 2008년 6.0%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글로벌 유동성위기로 터키로의 FDI 금액이 2007년 222억 달러에서 2008년 145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개발도상국인 터키의 경우 해외자금 차입의존도가 높아 금융위기시 외부자금의 국내 이탈이 나타나면서 통화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경제정책 시행으로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 2006년 리라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억제목표(IMF 차관 지원조건)인 5%를 초과한 10.5%를 기록하여 물가불안 조짐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와 같은 급등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음.
- 2007년에는 긴축통화정책(고금리), 내수부진(내구소비재 소비지출 억제), 고정투자 증가둔화, 리라화 강세 및 전기요금 인상동결조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대로 둔화되었으나 중앙은행 억제 목표치인 4%±2% 포인트를 상회함.

- 2007년 8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에는 전년 하반기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및 교통비 등 공급측면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둔화되며 12월에 10.1%를 기록하였으나, 리라화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 조짐 및 전기, 가스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IMF 차관 지원조건 충족

- 2007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악화되어 1.6%를 기록하였으나, IMF 차관 지원조건인 6.5%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2007년 재정수지 악화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18%→8%), 내수 부진, 조기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8년에도 2009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재정지출이 지속되었고, 실업률 감소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로 전년 수준인 GDP 대비 1.5%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중 IMF 대기성차관 수혜 예상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키 경제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IMF와 터키 정부간 지원규모, 재정조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2009년 1월 터키와 IMF는 지원조건에 대해 협의를 재개하였으나 차관 공여시 긴축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가 2009년 3월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양자간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차관공여 여부는 3월 지방선거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정책

□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이 경제개혁의 관건

- 1999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년 5개월간 IMF 대기성차관을 수혜 받았으며,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동 차관 집행잔액은 89억 달러 (SDR5,742백만)인 것으로 파악됨.
- 2006년 중반 리라화 환율의 불안으로 야기된 유동성위기는 터키 정부의 긴급 금리인상조치 및 IMF 자금지원재개 등으로 2006년 7월 이후 진정 되었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장세에서도 리라화는 일시적인 소폭 하락세에 그쳐 정책당국의 경제안정화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 * IMF는 2005년 5월부터 3년간 대기성차관 지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제 개혁 추진을 터키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경제 안정화, 대외경쟁력 제고, 외국인투자 유치 및 대 EU 관계호전을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1994년 이후 수차례에 걸린 터키 경제위기의 근본적 요인이었던 금융부문 부실에 대한 우려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재연됨.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재정체계 강화, 조세징수제도 개선, 금융부문 안정성 제고, 부패 축소, 민영화 지속추진, 인플레이션 억제, 세원 투명화 등이 터키 정부의 당면과제로 대두됨.

□ 서비스업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음.
- 터키 경제는 2007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이 GDP의 8.9%, 섬유, 주요 다국적 자동차 생산기업의 유럽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28.3%,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62.8%를 차지하는 구조임.

- 제조업 분야는 EU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주요 공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설비투자가 요구됨. 유서 깊은 유적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관광산업은 전통적으로 유망한 분야임.

□ 수출지향 대외경제정책 시행

- 1980년대 수출지향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였음.
-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2003년에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에 EU와 관세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터키가 중동부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U의 공동무역정책과 같은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이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래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기준금리, 2007년 하반기 이후 인하 전환

- 2006년 6월, 에르도간 총리는 제9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에는 GDP 7,97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3%이내, 경제성장률 6.5%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함.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6-7월 기준금리를 4.25% 포인트 이상 인상하여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는

17.5%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9월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2008년 5월 15.5%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2008년 6월 이후 소폭의 금리 인상이 있었으나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차입 기준금리를 동년 11월 19일에 50bp(16.75%→16.25%), 12월 18일에 125bp(16.25%→15%) 인하, 2009년 1월 15일에 200bp(15%→13%)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였음.

□ 2005년 이후 민영화 단계적 추진

- IMF는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민영화를 터키 정부에 강력 권고 하였으나 터키 정부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2005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민영화 기업으로는 프랑스 Alcatel에 지분 40%를 매각한 Teletas (전력업체), 이탈리아 Fiat에 지분 17%를 매각한 Tofas(자동차업체), 러시아 Tatneft 자회사인 Efremov Kautschuk에 지분 66%를 매각한 Tupras(정유 업체), 네덜란드 ING Bank에 매각('07.12)된 Oyak Bank 등임.

- 2008년 주요 민영화 실적으로는 Socar-Turkcas-Injaz 컨소시엄앞 Petkim (국영정유회사) 지분 51%(20.4억달러) 매각 및 Turk Telekom의 이스탄불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한 15%(19.2억달러) 지분 매각임.

* Turk Telekom은 2005년 11월 사우디-레바논 계열의 통신회사인 Oger Telecom에 대하여 65.5억 달러의 지분(55%)을 매각함.

3.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e |
|-----------------|---------|---------|---------|---------|-------------------|
| 경 상 수 지 | -14,431 | -22,137 | -31,893 | -37,697 | -44,904 |
| 경 상 수 지 / GDP | -3.7 | -4.6 | -6.0 | -5.7 | -6.0 |
| 상 품 수 지 | -22,736 | -32,988 | -40,941 | -46,669 | -55,868 |
| 수 출 | 68,535 | 78,365 | 93,611 | 115,356 | 135,453 |
| 수 입 | 91,271 | 111,353 | 134,552 | 162,025 | 191,321 |
| 외 환 보 유 액 | 35,480 | 50,402 | 60,710 | 73,156 | 71,200 |
| 총 외 채 잔 액 | 161,052 | 169,279 | 207,854 | 247,121 | 293,850 |
| 총 외 채 잔 액 / GDP | 41.2 | 35.0 | 39.2 | 37.5 | 39.5 |
| D . S . R . | 35.0 | 38.0 | 32.9 | 32.6 | 35.9 |

자료: IMF, EIU 및 세계은행.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상품수출은 2006년 936억 달러, 2007년 1,15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해 왔으나, 중간재 수입증가 및 원자재(원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 또한 2006년 1,346억 달러, 2007년 1,620억 달러로 급증함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경상수지적자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FDI 지분증가에 따른 배당금 지급(소득수지 악화) 등으로 GDP 대비 6.03%인 44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최근 러시아,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로 국내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2008년 10월에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한 96억 달러, 수입은 4.8% 감소한 14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동월 대비 7.6% 축소됨.
- 최근의 유동성위기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리라화 환율 변동성 심화

- 리라화 환율은 2006년 5-6월 유동성위기 이후 안정화되어 2007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 대비 1.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08년 9월 이전에는 리라화 환율이 전년 수준을 형성함.
- 그러나 2008년 9월 중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흥투자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 달러화 기준 리라화 환율은 9월 말 1.27에서 12월 말에는 1.55 수준으로 급등하였음. 2009년 1월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미달러화 기준 1.64를 기록하였고, 유로화기준으로도 리라화 환율은 2.15 수준을 형성함.

□ 민간부문 외채 급증

- 총외채잔액은 2005년 1,693억 달러, 2006년 2,079억 달러, 2007년 2,471억 달러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8년 약 40% 수준으로 추정됨. 2007년 외채잔액은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는바, 이는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 표시 채무의 달러화 환산에 기인한 것임.
-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06년말 45.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말 37.1%로 추정되고 있어, 외채증가는 주로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D.S.R.은 2002년의 48.2%에 비해 2008년 35.86%로 하락하여 점진적인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상태임.
- 한편, 외환보유액은 자본유입 지속으로 2007년 말 732억 달러, 2008년 9월 76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1월 말 기준으로는 712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2년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은 과거 복지당(Welfare Party)에서 활동하였던 자유우익 노선의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에 의해 2001년 8월에 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기총선에서 34.3%의 득표로 재적의원 중 36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 2004년 5월 지방선거에도 압승을 거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됨.
- AKP 소속의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슬람계 정당인 전 복지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슬람 노선을 견지하던 복지당과 1998년에 창당된 미덕당(Virtue Party)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체됨에 따라 AKP는 이슬람정책을 탈피한 친서구화(EU)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여당 재집권으로 국정불안 일단 해소

- 2007년 7월 22일 조기총선에서도 AKP는 46.7%의 득표율로 전체 550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당초 2007년 11월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년 4월 여당(이슬람 정권)의 대통령직 장악과 이에 대한 야당 및 군부를 중심으로 한 반발 시위, 헌법재판소의 대선 결정 무효판결 이후 여당은 7월 22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제안(5월 3일 여야간 합의)으로 국민의 반발을 일단 무마하였음.
- 그러나 5월 6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차 의회투표에서 압둘라 굴(Abdullah Gul) 외무장관이 야권의 거부권 행사로 의원 정족수에 미달함에 따라 대선후보 사퇴를 선언하였고, 7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헌법개헌(대통령 직선 및 5년 중임으로 변경)으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8월 28일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AKP는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EU 가입 추진에 호의적인 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7년 개헌법안 가결

- 2007년 10월, 국민투표에서 의원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이 68.9%의 찬성(투표율 67%)으로 가결됨에 따라 차기 총선은 2011년 7월에 실시될 예정임.
- 2007년 10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에서 5년 중임가능으로 변경되었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4년 8월에 실시될 예정임. 대통령은 현행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1-2차 투표 2/3 찬성, 최종 3차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09년 3월 지방선거 예정

- 2009년 3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 에르도간 총리 및 집권여당(AKP)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임.
- 2011년 7월 차기 총선이전에는 현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의 정치적인 입지 및 국정운영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함.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47년 3월, 터키가 미국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함으로써 본격화되어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함.
- 그러나 2007년 10월, 미하원 외교위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1915-17년)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미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나,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 개선되고 있는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동(이란, 시리아)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는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아직도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남아 있음.
- 이후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2004년 5월에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사이프러스를 정식 국가로 승인함.
- 2006년 12월 사이프러스와의 관계 악화 이후 2008년 1월 말 그리스 총리의 49년만의 앙카라 방문, 동년 2월 중순 사이프러스 대선에서 강경노선의 파파도플로스(Tassos Papadopoulos) 대통령 낙선으로 터키-사이프러스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됨.

□ EU 가입협상에 대해 대외정책 역점

- 1999년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 터키는 사형제도, 국가안보법 및 군부의 의원선출권 폐지 등의 인권관련 법안 통과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2006년 12월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EU 가입협상 항목 중 재화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 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이후 EU는 터키 인권 부문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언론 및 종교의 자유, 여권신장,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향상,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터키 국민의 EU 가입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 향후 EU 가입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 터키 EU 가입에 대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쿠르드족간 무력충돌 잠재

- 2005년 2월, 이라크총선에서 쿠르드족이 27.3%를 득표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왔음.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 노동당의 테러 우려로 이라크 및 미국 정부와 협상을 가짐.
- 2006년 9월에는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로 이란 천연가스 수송관이 3일 동안 폐쇄되는 등 쿠르드족과 관련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불안 가능성이 상존함.
- 2007년 9월 30일, Sirnak 지방에서 12명의 시민과 군인 사망, 10월 7일과 21일, 군인 25명 사망(8명 실종)으로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간의 무력충돌이 재발함. 2007년 12월 이후 터키 무장군인의 쿠르드족 반군기지에 대한 공습, 2008년 2월 터키 지상군의 이라크 지역 침입으로 터키군 24명, 쿠르드족 230명 사망 등 충돌사태가 지속됨.
- 터키 정부는 2007년 10월,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해 이라크 북부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동의안을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함에 따라 이라크 북부지역에 대한 12개월간의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해짐. 특히, 터키 정부는 쿠르드노동자당(PKK) 활동의 종식을 위해 이라크 국경 인근 쿠르드족 반군 은거지에 대한 부분 공습을 감행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5등급(2004. 1) → 4등급 상승(2008.1) → 4등급 유지(2009.1)
- S&P: B(2003.7) → B+(2003.10) → BB-(2004.8) → BB- 유지(2008.11)
- Moody's: B1(1997.3) → Ba1(2002.8) → Ba3(2005.12) → Ba3 유지(2008.2)
- Fitch: B+(2004. 2) → BB-(2005. 1) → BB- 유지(2007.12)
- I.C.R.G: 103/140(2006.12) → 105/140(2007.11) → 117/140(2008.11)
- Euromoney: 69/185(2006. 9) → 68/185(2007.9) → 76/186(2008.9)
- I.I: 74/173(2006. 9) → 71/174(2007.9) → 70/177(2008.9)

<OECD CRE 회의 평가시(2009.1) 등급 유지 근거>

- *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국제적인 신용위기에 취약한 대외지불능력, 공적채무증가 및 통화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거시경제가 악화되면서 IMF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임.
- * 그러나 EU 등 국제사회의 터키 경제여건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은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이고, 터키 정부의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발표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므로 종전 등급유지가 타당함.

<S&P의 전망 하향조정(Stable → Negative, 2008.11)>

- * 대외금융여건이 어려워지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보다는 2009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대외차입수요도 2009년에는 경상수입과 가용 외환보유액을 합한 금액의 1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투자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
- * 대외차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터키 민간기업(금융기관 포함)의 자국내 외화조달 압력이 증대되면서 리라화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0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5억 달러, 중장기 209억 달러로 총 224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2천6백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그쳐 중장기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OECD CRAM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8년중 대 터키 교역 및 투자 소폭 감소

- 2008년 한-터키 교역규모는 41.4억 달러로 2007년 43.7억 달러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2008년 무역수지흑자폭도 34.1억 달러로 2007년 38.1억 달러 대비 10.5% 감소하였으나 2008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는 2002년의 7.4억 달러의 4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무역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6년 15.9백만 달러(총 20건)에서 2007년 1.1억 달러(총 56건)로 7배이상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며 2008년 1~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액은 4천만 달러(총 32건)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해외투자 누계액은 총 3억 1,692만 달러(신규법인 설립 50건)로 조사됨. 업종별 대 터키 직접투자 실적은 제조업이 2억 6,162만 달러(신규법인 설립 34건)로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기업의 대 터키 투자는 저임 노동력 및 기술력의 활용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V. 종합의견

- 2008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누적, 사회보장 개혁법안 실행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 IMF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는 호전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상황이 반전되었음. 특히, 터키의 대규모 대외차입 수요 및 단기자본 유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감소와 함께 경제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및 외환보유액 수준을 감안할 때 금융 유동성 문제는 단기간내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금년 3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일정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IMF차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당분간 터키 경제안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